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41호

2025.03.13.(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중국·원자재** 중국, 산업 구조조정 촉진 위해 철강 감산 예고
- 인나·광업** 인도네시아, 광산회사에 로열티 인상 계획 검토
- 미국·에너지** 미국, 폐쇄된 석탄화력 발전소 재가동 필요성 강조
- 말리·원자재** 말리, 광산권 할당 허가 정지 일부 해제 예고

주간 이슈 포커스

- 콩고·광물** 콩고, 미국에 전략적 광물 협정 제안

원자재 뉴스 PLUS

- 에너지** 탄자니아, 5월에 석유 탐사 허가 라운드 시작 예정

II. 월간 공급망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텅스텐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트럼프 2.0시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대응 방향

IV. 공급망 소식통



2025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3.17.)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중국, 원자재 중국, 산업 구조조정 촉진 위해 철강 감산 예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철강 생산량을 감축하여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하며 대규모 철강 감산을 예고(3.5.)

- 동 조치는 부동산 경기 악화 및 내수 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국 철강 기업들이 자국 내 잉여 철강 물량을 해외에 저가로 판매하면서, 무역 상대국들이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
- 또한, 미국이 오는 12일부터 모든 철강 수입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수출 여건이 악화됨으로 인해 철강 감산 필요성이 커짐

*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감축량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연간 약 5천만 톤을 감산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작년 한국 철강 생산량(약 6,350만 톤)의 79%, 중국 연간 수출량(약 1.1억만 톤)의 45%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임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3월 1주차 철광석 가격은 1톤 당 100.98달러에 거래되어 7주만에 하락세를 보였으며, 로이터는 이를 철강 감산 예고로 인한 현상이라고 해석

핵심 키워드

철강

감산

출처: 블룸버그(3.5.), 로이터(3.5.)

인니, 광업 인도네시아, 광산회사에 로열티 인상 계획 검토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3.8일 공개협의(Public Consultation)에서 석탄·니켈·구리 등의 광산업체 및 관련 상품 생산업체에 로열티*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힘

* 로열티란 특정 권리를 이용하는 자가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서, 이 경우에는 광산 이용에 대한 대가임

- 공개협의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니켈 광석의 단위 가격 수준에 따라 14~19%의 로열티를 부과할 것을 제안
- 이외에도 주석·금·은·백금 등에 대한 로열티 증가 또한 협의 내용에 포함됨

광산업체들은 ▲3.1일부 시행된 외환통제 정책으로 인한 자금 흐름 축소, ▲정부가 정한 석탄 가격의 의무적 사용, ▲산업용 바이오디젤에 대한 보조금 폐지로 인해 이미 재정이 어려움을 호소

- 세금 인상 시, 프리포트 맥모란社, AMMN社, 팀나(Timah)社 등의 광산이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핵심 키워드

니켈

구리

출처: 로이터(3.11.), 블룸버그(3.10.)

미국, 에너지 미국, 폐쇄된 석탄화력 발전소 재가동 필요성 강조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은 3.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폐쇄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함**

* 더그 버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신설된 에너지 정책 총괄부서 ‘국가 에너지 주도 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의 위원장으로서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에너지 컨퍼런스 ‘CERAWEEK’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

➡ 또한,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환경 규제를 간소화하여 ‘에너지 독립’을 촉진하고 석탄 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미국의 2023년 석탄 생산량은 약 292만 톤으로, 이는 전 세계 생산에서 약 6.6%(4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소비량 기준으로는 세계 8.2%(3위)를 차지

* 생산량 1위 중국(51.9%), 2위 인도(9.3%), 3위 인도네시아(8.8%) / 소비량 1위 중국(91.9%), 2위 인도(22%) (출처: Statista)

➡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석탄 생산량은 2000년 457만 톤에서 약 36% 감소한 바 있음

핵심 키워드

석탄

발전소

출처: 블룸버그(3.10.), 로이터(3.10.)

말리, 원자재 말리, 광산권 할당 허가 정지 일부 해제 예고

 로이터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금 생산국인 말리가 3.15일부로 ‘22년 실시된 광산권 할당 허가 발급 중단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함(3.7.)

* 말리는 아프리카에서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금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며, 말리의 롤로-군코토 금광(캐나다 업체 배릭골드가 지분 80% 소유)은 생산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 수준

➡ 신규 광산 채굴 허가 및 탐색 허가는 계속 중단된 반면, 이번 조치로 인해 말리 광산생산국은 기존 탐색·개발 허가의 갱신, 그리고 탐색에서 개발로의 전환 신청은 접수할 수 있게 됨

➡ 말리 정부는 2022.11월부로 영토 전역에서 광산권 할당 허가를 중단한 바 있음

 앞서 로이터 등 외신은 금광 CEO들의 말을 인용해 말리의 광산 관련 규제가 엄격하여 금광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함(2.5.)

핵심 키워드

금

광산법

출처: mining.com(3.7.), 로이터(2.5.), Statista(3.12.)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콩고, 광물 콩고, 미국에 전략적 광물 협정 제안

📌 파이낸셜타임즈는 3.8일(현지시간) 군사지원을 대가로 콩고가 미국에게 광산 개발 채굴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협상이 양국 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콩고가 첨단 기술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당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것에 열려있다고 발언함
- ➡ 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국가로서, 미국이 콩고의 광산 개발 채굴권을 보유할 경우, 전기차와 휴대전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코발트 공급망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됨

콩고의 정치와 광물자원 알아보기

▶ 콩고 내전 개요

- ➡ 투치족 반군 M23은 지난 1월 말 대규모 공세로 인구 200만의 동부 최대 도시인 고마를 장악한 것에 이어 지난달에는 동부 제2의 도시인 부카부 또한 점령
- ➡ 코발트·주석·텅스텐·금 4대 분쟁 광물이 풍부한 콩고에서는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의 강대국과 무장단체들이 오늘날까지 혈투를 벌이고 있음

▶ 콩고의 광물 자원 현황

- ➡ 콩고는 2024년 기준 약 600만 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코발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발트 생산량은 약 22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함
 - ▶ 1960년대 이래로 전 세계 코발트 광산 생산은 콩고에 집중되어왔으며, 소규모 영세 광산이 대부분임
- ➡ 코발트는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전기차 배터리·합금·화학 세라믹·시멘트 카바이드 등에 사용되므로 중요성이 커짐
- ➡ 한편 콩고는 세계 제2위의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매장량의 약 10%에 달함
- ➡ 우드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가 2027년에 페루를 넘어서는 세계 2위 구리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

전세계 코발트 매장량 순위 (단위: 천 톤)

순위	국가	매장량
1위	콩고민주공화국	6,000
2위	호주	1,700
3위	인도네시아	640
4위	쿠바	500
5위	필리핀	260

* 자료: Statista

전세계 구리 매장량 순위 (단위: 천 톤)

순위	국가	매장량
1위	칠레	190,000
2위	호주	100,000
3위	페루	100,000
4위	콩고민주공화국	80,000
5위	러시아	80,000

* 자료: Statista

▶ 전망 및 시사점

- ➡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콩고의 광물 공급망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에는 중국과 같이 콩고에 진출해있는 국유기업이 없고, 민간 광산 회사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함
- ➡ 따라서 콩고가 미국과 광물 관련 협정을 맺게 될 시에는 채굴권 허가를 제공하는 방법 이외의 해결책 필요

핵심 키워드

분쟁 광물

광물협정

출처: 로이터(3.10.), 2025 미국 지질조사국 광물 상품보고서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탄자니아, 5월에 석유 탐사 허가 라운드 시작 예정

📌 탄자니아 정부는 5번째 석유 및 가스 라이선싱 라운드*를 오는 5월 개시할 것이며, 이번 라운드에서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할 예정임을 발표

* 라이선싱 라운드란 정부 기관이 임대가능한 탐사면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해당 라운드는 탄자니아에서 10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과거 탐사로 16.1조 리터 이상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발견되었으며, 탄자니아는 이를 활용하여 전력의 절반 이상을 생산 중

🔍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6월까지 투자자들과 420억 달러 규모의 LNG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로이터(3.7.)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3월 1주)

비철금속 | 中 경기부양책 및 美 관세부과에 따른 동 가격↑, 주요 생산국 감산 전망에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2월	전년비(%)	2.4주	3.1주	전주비(%)
동	9,147	9,153	0.1	9,447	9,523	0.8
니켈	16,812	15,327	△8.8	15,408	15,815	2.6
아연	2,779	2,812	1.2	2,796	2,834	1.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中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추진,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투자수요 개선, ▲美 동 관세부과 결정에 따른 선제적 수요발생 등으로 전기 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

📌 (니켈) 中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 및 인니·필리핀 감산전망으로 니켈가격 상승압력

철강 | 미국發 관세리스크 지속 및 중국 조강생산 감축우려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2월	전년비(%)	2.4주	3.1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12.85	△17.3	101.12	104.81	3.6
원료탄	240.90	190.25	△21.0	187.40	184.20	△1.7
철광석	109.89	104.11	△5.3	106.15	100.98	△4.9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유연탄)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中 경기부양책에 따라 연료탄 가격 상승압력 발생

📌 (철광석) 中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美-中 무역갈등 지속, ▲美 철강 추가관세 부과, ▲中 조강생산 감축 전망으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3월 1주)

희소금속 | 공급 증가 및 계절적 수요둔화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2월	전년비(%)	2.4주	3.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130	△5.9	1,140	1,130	△0.9
탄산리튬	12,526	10,361	△17.3	10,307	10,247	△0.6
수산화리튬	11,398	9,654	△15.3	9,715	9,603	△1.2
코발트 (U\$/lb)	16.25	14.10	△13.3	14.00	14.05	0.4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30,786	△10.3	236,700	234,700	△0.8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58,974	5.9	63,600	62,640	△1.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탄산리튬) 칠레·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공급 지속 증가 및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대응하여 캐나다 온타리오주 소재 PAK Lithium 프로젝트* 재정 지원계획 발표 등 공급 증가

* 동 프로젝트는 배터리 광물·소재의 생산 확대를 위해 Frontier Lithium社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에너지 | OPEC+ 증산 결정 및 美 대러제재 완화 가능성 제기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2.4주	3.1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8.13	△1.45	76.93	71.33	△5.60
브렌트유	79.86	75.91	△3.94	73.51	70.36	△3.16
WTI	75.76	72.44	△3.31	69.67	67.33	△2.35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OPEC+가 4월부터 증산 결정을 내리면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美 에너지정보청(EIA)이 2.28일 기준 주간 상업 원유 재고가 4.3만 배럴로 전주 대비 361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여 공급과잉 우려 심화

➡ 또한, 로이터는 백악관에서 美 재무부와 국무부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을 위해 해제 가능한 제재 목록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보도하며 미국의 대러제재 완화 가능성을 제기

* 에너지 부문의 제재가 완화될 시, 시장 內 러시아 원유 공급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월간 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텅스텐

작성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텅스텐 품목 개요

- 원자번호 74에 해당하는 금속으로, 금속 중 녹는점($3,400^{\circ}\text{C}$)이 가장 높고 인장강도, 내식성이 좋으며, 단단하고 안정적인 원소로 주로 초경합금, 고속도강 등에 사용
- 매장량 및 생산량이 중국에 편재되어 있어 중국의 공급이슈 및 정책과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 텅스텐 가치사슬

- 텅스텐의 가치사슬 구조는 채광, 제련·정제, 가공, 최종 사용, 재활용으로 구성됨

[그림 1] 텅스텐 가치사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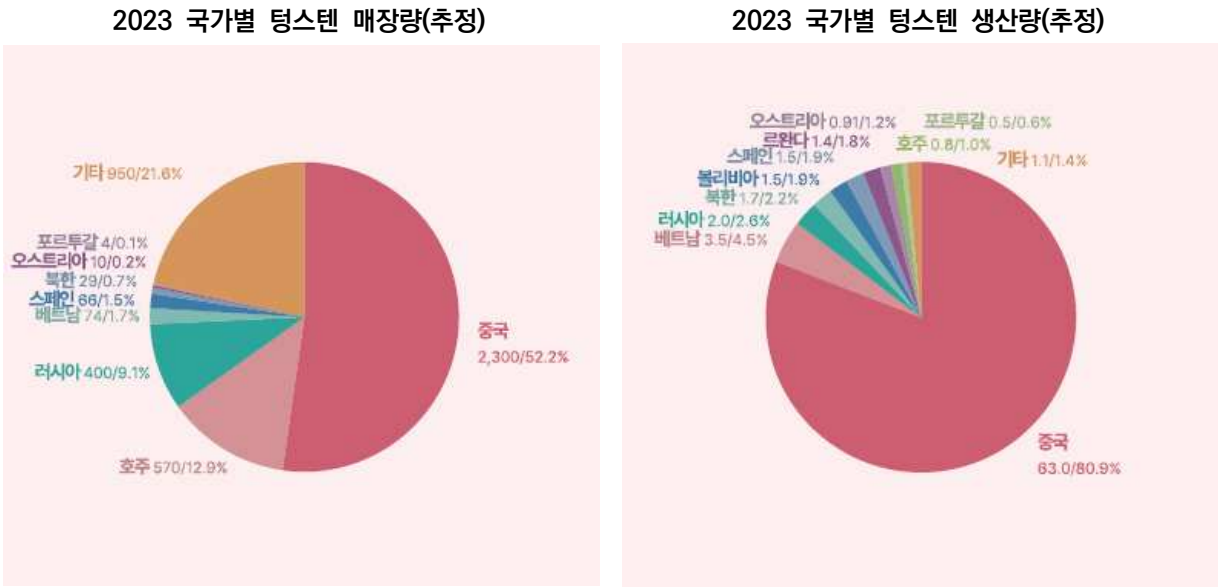
☐ 텅스텐 산업 동향

- 텅스텐은 높은 용융점과 내식성을 가져 전자기기 산업에서 필수 소재로 사용되며,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스마트가전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제품에 필요한 텅스텐 광석 및 정광의 수요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 텅스텐은 우수한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갖춰 기계공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며, 이러한 산업 확장에 따라 텅스텐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 고성능 컴퓨팅, 자동차, 전기차,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수요가 높아지며 인쇄회로기판(PCB)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이러한 전자기기 산업의 성장은 주요 부품 소재로 사용되는 텅스텐 금속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촉매 시장은 합성수지 및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확대로 필수 촉매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텅스텐 매장량/생산량 현황

- 주요 텅스텐 매장국은 중국(230만톤, 52.2%), 호주(57만톤, 10.5%), 러시아(40만톤, 9.1%) 순으로 나타남
- 주요 텅스텐 생산량은 중국(63,000톤, 80.9%), 베트남(3,500톤, 4.5%), 러시아(2,000톤, 2.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텅스텐 생산량/매장량 현황



출처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국내 수출액 추이 ('20~'24년)

- '24년 산화텅스텐의 수출액은 1,981천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5.3% 감소

[표 1] 수출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천 달러)	1,292	3,779	3,081	2,651	1,981

국내 수입액 추이 ('20~'24년)

- '24년 산화텅스텐의 수입액은 74,908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22.8% 감소

[표 2] 수입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천 달러)	61,891	85,049	100,479	97,069	74,908

텅스텐 생산·기술개발 현황

- 중국은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수출 제한 및 생산 조절 정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
- Global Tungsten & Powders(미국), HC Starck(독일) 등 주요 기업들은 텅스텐 분말과 고순도 텅스텐 소재를 생산하며, 전자,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에 공급함
- 텅스텐 기반의 고성능 합금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특히 텅스텐-구리(W-Cu), 텅스텐-니켈-철(W-Ni-Fe) 합금은 고열전도성과 높은 밀도를 갖춰 전자 및 방위산업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텅스텐의 고온 산화 저항성을 개선하는 나노코팅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항공우주 및 플라스마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
- 최근 텅스텐의 친환경적 가공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저온 소결 공정과 폐기물 재활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텅스텐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활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출처 및 참고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4 GVC 산업분석 보고서 및 GIVC 시스템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K-STAT)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 언론, 보도자료 및 기업 홈페이지 정보 등

공급망 더 알아보기

트럼프 2.0시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대응 방향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현안 분석(2025.1.20.)

트럼프 2기는 모든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트럼프 1기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정책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자.

☐ 화석에너지

- (석유)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요구 시 **미국산 원유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 고려
 -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
 - ▶ 국내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은 '22년 기준 13.2%로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할 여지는 있으나, 미국산 원유 도입 시 **민간의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가스) 미국산 LNG 도입 확대를 통해 가스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하고 국내 수급 조절 역량을 제고
 - ▶ 미국산 LNG의 「헨리 허브* 단일 연동방식」 혹은 「유가 - 헨리 허브 하이브리드 연동방식」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기존 「유가 연동 계약」과 혼합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위험 회피**
 - * Henry Hub : 북미지역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가격지표
 - ▶ **미국 LNG 수출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이 '**목적지제한조항**(수입국이 고정된 계약)'을 포함하지 **않아** 계약 체결 시 LNG 구매자의 수급 조절 능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판매도 가능**하여 수익 창출도 가능

☐ 무탄소에너지

- (원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원전 수출 및 SMR 개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
 - ▶ (대형 원전)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원전 수출 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수출 전략 고려
 - 트럼프 2기에서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자국 노형 중심 수출 등 독자적인 행보를 취할 시, 국내 개발 노형(APR1400, APR1000 등)의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 ▶ (SMR) 미국 내 SMR 사업추진 환경이 개선되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전략적 투자, 건설 프로젝트 등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미국 내 SMR 사업추진 여건 개선 → 투자 유치 증가 → 민간의 실증사업 진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형성 기대
 - 국내기업의 미국 내 SMR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래 SMR 시장 선점

- ⑤ (수소) 국내 청정수소 생산·도입 기업들의 미국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 적극 투자 및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국내 청정수소 도입 비용 최소화 노력
 - ▶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하락 및 CCS 지원제도의 유지(혹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블루수소의 생산단가 (LCOH)가 하락할 전망이므로 국내기업은 미국 내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공동·단독 투자 등을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안정화 및 도입 비용 최소화
- ⑤ (재생e)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내 제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기업 보호
 - ▶ 트럼프 1기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을 고려하여, 트럼프 2기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
 - ▶ 미국의 대중국 관세 상향 조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외 시장에서의 태양광 부품 저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 공급망 유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
 - ▶ 미국 해상풍력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가 대안시장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 터빈 수입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 해외 우수기업의 해상풍력 생산시설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기회로 삼는 전략 검토
 - 아울러 정부는 국내 공급망 유치 및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규제 완화, 국내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을 고려
 - ▶ 국내기업의 태양광 및 풍력 부품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으므로 해외수출 시장 다변화 모색

☐ 기후변화

- ⑤ 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동력은 유지될 전망으로 에너지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속
 -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약화가 예상되나, 글로벌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동력은 유지될 전망
 - ▶ 우리나라도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에너지산업 부문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속
 - 향후 저탄소 제품 생산이 국제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이 필수
 - EU의 탄소국경조정, 공급망실사법, 기후공시의무화 등 글로벌 기후규제 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제조업의 역량 강화
 - 트럼프 2기 시대를 산업부문의 청정생산 전환을 위한 내부 역량 확보 기회로 삼아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대비

☐ 종합

- ⑤ 미국산 석유·가스 도입 확대를 통해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미국 내 SMR·블루수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정에너지 역량을 확충
- ⑤ 견고한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비용경쟁력 있는 저탄소 제품 생산 역량을 확보

공급망 소식통

◆ 2025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3.17.)

작성 KOTRA 해외프로젝트실



**2025
국제감축사업
통합 사업설명회**

일시 | 2025.3.20 (목) 14:00-16:00
장소 | KOTRA 본사 국제회의장 (B1)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2025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
- ☞ 일 시: 2025. 3. 20.(목)
- ☞ 장 소: KOTRA 본사 B1 국제회의장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 ☞ 내 용: COP29 회의 결과 및 파리협정·NDC 동향 공유, '25년 부처별 국제감축사업 지원내용,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 신청·문의

- ☞ 신청 기간: 2025. 3. 4.(화) ~ 17.(월)
-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무역투자24 사업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
- ☞ 관련 문의: KOTRA 해외프로젝트실 온실가스국제감축팀 (02-3460-7495 / 02-3460-3252)

글로벌 경제지표 ['25.3.11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12말	3/7	3/10	3/11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472.50	1,446.80	1,452.30	1,458.20	0.41	△0.97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473.80	1,444.30	1,449.50	1,455.50	0.41	△1.24
₩/CNY	181.44	181.37	202.38	198.84	200.38	200.95	0.28	△0.71
₩/¥100	945.56	912.25	932.67	980.48	984.21	989.68	0.56	6.11
¥/U\$	133.73	141.19	157.88	147.56	147.56	147.34	△0.15	△6.68
U\$/EUR€	1.0617	1.1105	1.0429	1.0816	1.0842	1.0863	0.19	4.16
CNY/U\$	6.9630	7.1092	7.2992	7.2448	7.2554	7.2423	△0.18	△0.78

* '24년 평균 환율: (₩/U\$)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 1,450.6원, (₩/¥100) 946.1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3/10	3/11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71.38	70.53	△0.8	0.2	△5.4
						△1.2%	0.3%	△7.1%
철광석		89.35(9.23일)	100.00	101.00	101.95	1.0	12.6	2.0
						0.9%	14.1%	2.0%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547.00	9,628.00	81.0	1542.5	922.0
						0.8%	19.1%	10.6%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716.00	2,725.00	9.0	615.0	208.5
						0.3%	29.1%	8.3%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6,420.00	16,295.00	△125.0	1330.0	1195.0
						△0.8%	8.9%	7.9%

반도체

구 분	'23말	'24.11말	'24.12말	'25.1말	'25.2말	3/6	3/7	3/10	3월(~10)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84	1.75	1.74	1.73	1.72	1.72	1.74	1.73
(%, YoY)	△14.8	10.8	0.5	△6.3	△11.1	△11.2	△11.2	△10.5	△10.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8	6.63	6.63	6.62	6.63	6.63	6.65	6.63
(%, YoY)	△2.3	4.0	3.9	3.8	3.2	3.2	3.2	3.6	3.5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2/21	2/28	3/7	전주비(2/28)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595.08	1515.29	1436.30	△5.2%	△41.6%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3/6	3/7	3/10	3/11	전주비(3/10)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286	1400	1424	1436	0.8%	44.0%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협력기관

